

# 특별법 통과 사고 3년 허송...정부, 후속조치도 미적미적

## 문화전당 개관 D-100...‘반쪽 개관’ 현실로

오는 9월 광주에 문을 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콘텐츠(전시·공연 프로그램 등) 부족으로 일부 시설만 부분 개관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문화단체는 정부가 문화전당을 운영할 전담조직(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콘텐츠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담 운영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문화전당 개관마저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개관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당을 위한 운영할 조직 구성이 미뤄지고 있어 개관 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 추진단은 아시아예술극장의 개관축제를 비롯해 문화장조원에서 로이치 구로와가, 로지 아케다 등 해외 작가와 국내 작가들이 참여하는 ‘ACT(Art&Creative Technology)페스티벌’을 열 예정이지만, 넓은 공간을 채울 구체적인 콘텐츠는 여전히 준비중이다.

문화전당 개관준비가 순조롭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문화전당 전담조직의 설립근거가 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특별법)이 국회처리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특별법이 여야간 정치쟁점이 되면서 2월에야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조직을 구성하려던 추진단의 일정에 연쇄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현 상태라면 전담 운영조직이 언제 꾸려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화전당을 채울 개관 콘텐츠 구축은 요원하다. 추진단은 문화전당 전체 공간에 콘텐츠를 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개관 후 콘텐츠를 보강하겠다는 수순을 밟고 있는 모양새다.

추진단 관계자는 “9월 전당의 문을 열고 공간을

## 운영조직 언제 꾸려질지 불투명 추진단 “콘텐츠 채우기 불가능”

채울 콘텐츠를 추가로 확보해갈 계획”이라며 “문화전당을 대표할 전담장 선임과 전당을 위한 운영할 조직을 구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화예술계의 한 인사는 “문화부가 이제 와서 문화전당 콘텐츠를 채울 수 없다고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담조직은 물론 콘텐츠 구축을 위해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 김모(45)씨는 “광주의 미래를 기약하는 문화전당 개관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는 광주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문화전당 개관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특별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문화전당 전담 조직이 꾸려지지 않은 것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효남재단 상임이사는 “특별법이 발효된 상태에서 정부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화전당이 일정대로 9월에 개관할 지 의문”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2005년 착공했으며, 오는 9월 4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 초대형 복합문화공간이다. 아시아문화정보원, 어린이문화원, 문화창조원,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예술극장 등 5개원 건물로 구성돼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0일 앞두고도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인 민주평화교류원. 이 공간은 옛 전남도청 본관으로 문화전당의 민주평화교류원을 구성하는 6개 건물 가운데 하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기아차노조 ‘광주 자동차 벨리 조성’ 힘 보탠다

### 자동차벨리추진위원회 토론회 노사민정 대타협 참여 선언 민주노총 불참...이견 조율 주목

광주시가 미래를 걸고 추진중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자동차 벨리)’이 기아차 노조 광주지회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으로 사업 성공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자동차 벨리’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결과 발표를 서두르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행태(광주일보 5월 20일자 1면)를 보이는 상황에서 기아차 노조의 긍정적인 메시지는 예타 통과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기아차 노조 광주지회와 함께 노·사·민·정 대타협을 기반으로 한 연봉 4000만원대의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고, 자동차 기업들도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2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 자동차 산업벨리추진위원회(위원장 정찬용)에서 열린 토

론회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는 “광주형 일자리 로드맵 완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광주시 사회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노·사·민·정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로 참석한 박상모 기아차 노조 광주지회 정책고용실장은 “현대차그룹이 국내공장 설비 확대의 불가 이유로 내건 관세, 노사관계, 고비용 문제를 자동차 벨리 사업을 통해 모두 해결할 수 있다”면서 “FTA로 관세문제는 이미 해결됐으며 노사관계는 노·사·민·정대타협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고 ‘임금 4000만원’도 논의하겠다는 노조의 입장을 밝혔다”며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자동차 벨리 조성을 위한 9가지 제안으로 ▲완성차와 부품사 동반성장 ▲친환경 연료차 양산 ▲완성차·부품사·연구진이 함께하는 제3부지 마련 ▲시범 표준화 공장 도입 ▲자동차 물류시스템 설비 구축 ▲자체 주행시험장 확보 ▲시설물 안전 강화 ▲인력 고령화 대비 ▲여성고용 확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기도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 실장은 다만 “자동차벨리 사업에 노동계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반값 임금이나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같은 용어 사용은 좋지 않다”며 “사회적 임금이나 일하기 좋은 도시와 같은 노사의 입장을 함께 반영한 용어가 사용되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장은 “자동차 벨리 사업이 기대만큼 진척되지 않아 지역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현대차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역의 의견을 전달하고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기아차 노조 광주지회의 입장과 달리 민주노총이 최근 광주시의 노·사·민·정 대타협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광주시의 자동차 벨리 조성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광주시 최대 현안에 대해 이 지역 노동계가 이처럼 다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노동계 내부간 이견이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미디어아트 국제도시로 육성”

### 윤장현시장 日‘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회의 발제

### 4가지 비전 제시...U대회 홍보도

윤장현 광주시장이 광주를 지역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발전가능한 미디어아트 국제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26일 일본 가나자와시에서 열린 ‘제9회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UCCN)’ 연례회의에 참석해 ‘새로운 동반관계 모델과 혁신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윤 시장은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20개 도시 대표가 참석한 워커히의 주제 발제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미디어아트 ▲장르 간 융합하는 창의 산업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마을에서 세계로 확대되는 창의 교류 등 광주시의 네 가지 비전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어 “광주의 전략산업인 관광산업과 영상콘텐츠 산업을 활용해 지역 창조경제의 중심축을 이루고 지속발전 가능한 미디어아트 국제도시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시장은 UCCN 회원 도시의 경험과 지

식의 공유를 역설하며, 동반성장 전략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역설해 20개 도시 대표자와 100여명의 패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특히 연례회의에 참석한 각 도시의 대표들에게 친환경·평화·IT·문화대회를 지향하는 2015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홍보물을 전달하는 등 하계U대회도 적극 홍보했다.

윤 시장은 회의 주최 도시인 가나자와시의 야마노 요키요시 시장과 환담하고, 양 도시 교류의 문화예술 자원의 상호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UCCN)는 지난 2004년부터 ‘창의’를 경제·사회·문화·환경적 측면에서 도시의 지속 발전의 전략적 요소로 삼는 회원 도시 간 국제 협력체로 공예 및 민속예술, 디자인, 영화, 음식, 문학, 미디어아트와 음악 등 7개 분야 32개국 69개 도시로 구성돼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분야 창의도시로 지정됐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문화가 있는 날】 이번 주말 마지막 수요일에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관람료 무료·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야간개방 및 문화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날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한 달에 한 번쯤은,  
**문화로 소풍가자!**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영화관람 할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전국 주요 영화관 18사·29사

**도서관 야간개방**  
전국 도서관 야간개방 강화 및 영화상영 무료

**공연 관람 할인**  
국립극단,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공연장 공연 할인

**문화재 관람 할인**  
광주, 대전, 대구 등 4대 문화유산, 조선왕릉 무료 입장 및 할인

**전시 관람 할인**  
국립현대미술관 등 전국 박물관, 미술관 관람 할인 및 무료

**스포츠 할인**  
프로농구, 프로야구, 프로배구, 프로축구, 프로하키 관람료 50% 할인

**문화융성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